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 - 사회 수행평가 정리

1. 철학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까?

(1) 논지

프라네 셀락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일곱 번 인생을 산 사람이다. 열차 탈선, 비행기 사고,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하는 등 7번의 사고가 일어났고 그때마다 살아났다.

또, 마티유 리카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승려인데, 온종일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갈고닦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꼈으며, 실제 뇌과학적 관점에서도 일반인보다 더 행복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 헤도니아, 에우다이모니아. 헤도니아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쾌락, 에우다이모니아는 조용한 시간에 삶을 ??하며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 생기는 만족감이다. 프라네 셀락은 헤도니아, 마티유 리카르는 에우다이모니아이다.

(2) 내 생각

이 책에서 헤도니아와 에우다이모니아가 행복에 종류에 있다고 말했는데, 나는 에우다이모니아를 느껴본 적이 없거나 있어도 잘 몰랐어서 그런지, 헤도니아가 행복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 요소중에 친구가 있다는데, 확실히 친구들이랑 놀면서 시간을 보내면 진짜 행복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몇천년 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고 대단하다고 느낀다.

2.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해질까?

(1) 논지

돈이 많으면 행복 수치는 계속 올라갈까? 행복감에는 상한선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어느 순간까지는 행복 수치가 올라가지만 어떤 지점에 도달하고 나서는 행복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스털린의 역설' 이고, 한마디로 '돈이 행복하게 하는건 아니다'라는 것이 주장이다. 이 주장의 예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있다. 에블린 애덤스라는 사람은 복권에 두 번이나 당첨되었지만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투자에 수없이 실패하며 돈을 허공에 날리고 주차장에서 생을 마감한다. 또 칼리 로저스라는 사람은 10대 때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이 성형수술, 마약, 파티 그리고 3번의 자살시도로 안내했다.

(2) 내 생각

내 생각에는 돈과 행복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느정도의 돈이 있다면 돈이 아주 많은 부자와도 행복감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 논지에서 행복감에는 상한선이 있다는 주장에 나도 동의한다.

3. 정치에 대한 관심은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될까?